IT혁신, IT의존성 및 EA활용이 IT-비즈니스 연계(Alignment)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웅찬* · 정승렬** · 민대홍***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십 수년간 조직의 경영진과 CIO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IT-비즈니스 연계에 실무적 관점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혁신도구로 IT활용이 일반화되어 대두된 IT혁신, 업무의 IT활용이 늘어남에 따른 IT의존성, 그리고 업무와 IT의 복잡성이 증대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EA활용은 IT-비즈니스 연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120명으로 부터 설문을 수집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를 통해 유의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첫째 IT혁신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업무적인 사전검토와 사후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두 번째 IT의존성이 높아지면 IT구축시에 보다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가 가능해지며 세 번째 EA활용이 IT-비즈니스 연계에 유의성을 입증한 만큼 E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적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IT혁신, IT의존성, EA, IT-비즈니스 연계(Alignment)

논문접수일: 2013년 03월 22일 수정일: 2013년 06월 03일 게재확정일: 2013년 06월 28일
† 이 논문은 2013년도 국민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국민대학교 BIT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007023@naver.com
** 국민대학교 BIT전문대학원 교수(교신저자), srjeong@kookmin.ac.kr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205tianhwa@naver.com

Ⅰ. 서 론

1990년대 후반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가 본격 도입되면서 IT는 비즈니스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고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어 왔다(정철호, 정영수, 2010). 제조업의 경우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매출의 2.8%를 IT에 투자하면서 IT를 운영해왔다(Gartner, 2010).

최근까지 글로벌 경기불황이 계속됨에도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IT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영자는 효율적인 IT투자에 대해 이전보다 더 크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Luftman, 2000),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인 'IT와 비즈니스간의 연계(Alignment)'는 십 수년간에 걸쳐 CIO를 포함한 IT 운영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IT이슈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Luftman, 2003).

그러나 IT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이 각각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IT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었고(조현달, 2009) 이에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IT와 비즈니스간의 연계 성숙도 방법론(Henderson, 1993; Luftman, 2003), 상호 영향을 주는 인자 연구(Hartono, 2003; Newkirk and Lederer, 2006; Lu and Ramamurthy, 2011) 등을 연구해 왔다.

IT와 비즈니스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정부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사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EA의 활용 목적은 IT와 비즈니스의 연계를 최적화 하기 위함으로(Winter and Schelp, 2008; Ernst, 2008) 정부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범정부 EA정책방향 및 기본계획(2011)"에 따르면 정부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의 과반이 넘는 76%(대상 기관 132개 중 100개 기관)가 EA를 구축하는 등 활발히 EA적용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고 기업도 정부기관 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EA적용을 추진중에 있다(김형진 외, 2006).

한편 기업은 시장의 경쟁력 제고라는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T를 혁신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제품 개발 Lead Time 단축, 제조 프로세스 투명성 제고, 구매 선진화 등 업무혁신 활동에 IT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수형, 최진혁, 2011). 이렇게 IT를 활용한 혁신활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용자는 IT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Kwon et al., 2009) 업무활동

상당부문은 IT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운 즉 IT 의존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보자원 담당부서의 궁극적인 지원 목표인 IT-비즈니스간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현업 관점에서 도출하고 이들 요인들이 어떻게 그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직내 업무에 IT의 영향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IT 의존도와 전사 아키텍쳐의 활용도에 따라 IT-비즈니스간 연계가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혁신활동에서의 IT 활용도가 IT-비즈니스간 연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IT혁신

혁신이란 새롭고 창조적인 사고의 개발과 성공적인 구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Amabile, 1988). 특히, 기업에서의 혁신은 조직 혹은 프로세스에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외형 성장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조직 내의 구성원은 물론 조직 내의 집단 또는 조직 주변의 이해관계자 집단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Kang, 2007).

기업조직은 업무영역별 혹은 전사 차원의 전담 혁신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과제 발굴 및 실행을 주도하고 있고 혁신 과제의 성공을 위해서 혁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혁신을 수용하는 구성원의 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박광오, 장활식, 2011). 또한 조직 및 조직원 개인을 상대로 주기적인 혁신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혁신을 수용하고자 자세를 취하는 계기는 혁신으로 인한 가시적인 이득, 즉 원가절감, 업무 Lead Time 단축 등의 업무성과가 인지되면서부터 시작되게 된다(Ching and Niehoff, 2003). 즉, 혁신으로 인해 업무나 조직경쟁력이 향상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제대로 된 혁신이 추진되는 것이다.

IT를 통한 혁신은 조직의 경영 프로세스와 생산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의 의사결정 등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박광오, 장활식, 2011). ERP, SCM 등의 대규모 정보인프라 구현으로 비즈니스의 IT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IT의존도가 높은 IT 혁신적인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보다 강력한 혁신 성향 및 시장 지배력 증대로 IT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Stratopoulos and Lim, 2010). 기업 비즈니스의 IT기술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많은 선진기업들은 그

들의 경쟁자들 보다 혁신에서 앞서 나갔다. 특히 호텔업계의 Harrash, 폐기물 처리 분야의 Waste Management, 금융분야의 Capital One, 광고 인쇄업계의 RR Donnelley 등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내부 프로세스, 제품 그리고 시장에서 그들 고유의 특성에 맞는 IT혁신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IT혁신 추진을 통해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하였다 (Stratopoulos and Lim, 2010).

이렇듯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IT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IT에 대한 조직의 열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Venkatesh and Davis, 2000). IT를 정교하고 세련되게 운영하며, IT 채택시 의사결정이 빠르게 수행되고 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 IT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관찰된 것이다(Swanson and Ramiller, 2004).

IT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사전준비, 채택, 실행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Kettinger and Lee, 2002).

사전준비(Initiation)는 새로운 IT에 대한 아이디어 혹은 제안을 포함한 준비단계이고, 채택(Adoption)은 IT를 통해 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의 권한부여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나 업무에 적합한 IT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 단계이며 실행(Implementation)은 채택한 IT가 조직의 업무행위 및 프로세스와 완전하게 통합되도록 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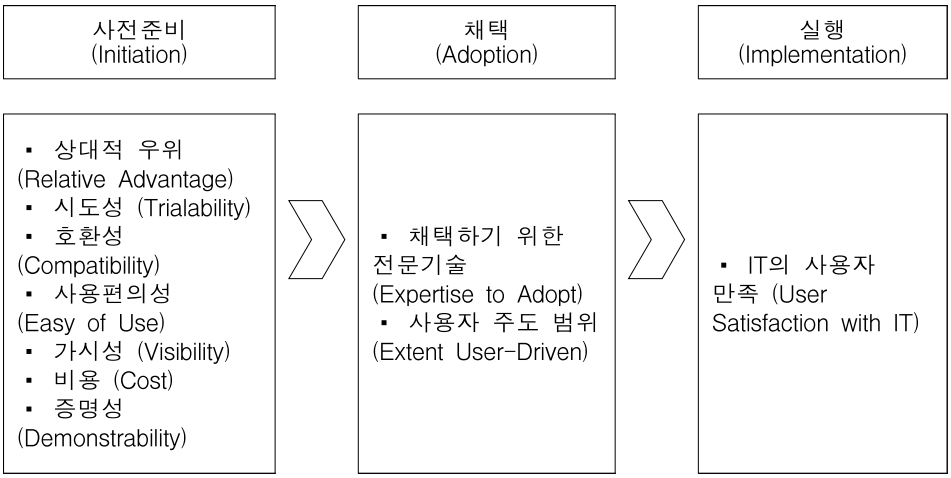
이러한 절차에 의해 IT혁신은 IT전담부서와 현업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각자의 이해관계 혹은 업무 및 IT의 이해수준에 따라 의견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성공적인 단계진행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명확한 역할정의와 협력관계 조율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IT혁신을 이루는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Swanson and Ramiller(2004)는 앞선 Kettinger and Lee(2002)의 연구와 유사하게 조직에서의 혁신을 이해도(Comprehension), 채택도(Adoption), 실행(Implementation), 흡수도(Assimilation)로 구분하여 정의하였고 Tornatzky and Klein(1982)에 의하면, 혁신은 호환성(Compatibility), 상대적 우위(Relative Advantage), 복잡성(Complexity), 비용(Cost), 소통(Communicability), 가분성(Divisibility), 수익성(Profitability), 사회적 승인(Social Approval), 시행성(Trialability), 관찰성 (Observability)의 10개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채택시 의사결정 개체로서 혁신을 중심으로 전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들을 대표한다.

또한 설득(Persuasion), 훈련(Training), 직접사용경험(Direct-Use

Experience)이 IT혁신에 있어서 중요 요소로 알려져 있다(Xia and Lee, 2000).

존성이 낮다는 것은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한경일, 2003).



<그림 1> IT혁신 프로세스 단계 모델 (Kettinger and Lee, 2002)

2. IT의존성

의존성은 파트너들이 상호접촉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조직 간 교환되는 대상의 크기와 중요도, 그리고 자신의 파트너를 최선의 대안으로 간주하는 정도와 대안의 존재여부로 의존성 크기가 결정된다(박성순 외, 2004).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상호의존성은 수행활동에 대한 관련 업무의 영향력 정도로 정의되는데(Kiggundu, 1981) 상호 의존성이 높다는 것은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따른 업무와의 협조와 조정이 많이 필요하고, 상호의

IT의존도는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영향정도로서 IT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활동들을 IT의존도가 높은 업무활동들로 정의하였다(Nordströma, 2000).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정보 기술이 없어질 경우 기업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며(Rubenstein et al., 1988) 기업의 정보 기술 의존도가 높을수록 조직의 정보 강도 및 활용도는 높게 된다. 현장사용자가 ERP,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 등에서 실시간 발생하는 현장정보를 활용하여 업

무를 수행하거나 경영자나 관리자가 BI(Business Intelligence) 등의 분석 및 요약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전략을 수립 혹은 관리상 의사 결정시 IT 활용이 늘어나게 된다.

박성순 외(2004)는 기업정보화 핵심 업무활동 선정 위한 IT의존도 결정모델 연구에서 IT의존도를 경영활동에 IT가 얼마나 지원하고, 영향을 주며, 경영성과를 위해 필요한 정도라고 정의하고, 미래의 IT의존도 환경을 반영한 중요도, 활용도, 필요도 3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중요도는 해당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정보화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활용도는 구축된 정보화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정도, 양, 비중으로, 필요도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구축된다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3. EA활용

EA(Enterprise Architecture)란 조직을 관리하고 이해하는데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표현하고 통합하며 일관되게 정렬하기 위한 지속적 프로세스의 결과라고 정의한다(Caetano et al., 2009). EA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조직의 목표와 요구를 잘 지원하기 위해 IT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는 유사하다(Bernard, 2005). 즉, EA는 비즈니스의 효과적인 운영과 최대 성과를 거두기 위해 IT와 비즈니스를 최적화 연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정의한다(Winter and Schelp, 2008).

일반적으로 EA는 비즈니스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테크니칼 아키텍처 등의 4가지로 구성하며 이를 통해 IT 투자심의 혹은 비즈니스 변화 대응에 필요한 IT과제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EA의 활용에 대해 전성현(2008)은 명시적, 선행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EA 추진과정에서의 활용은 묵시적이며 사후에 고려되는 개념으로서 구축 중심적 EA에서 활용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활용의 개념을 EA 추진 출발부터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의미를 정형화하며, EA추진에 있어서 활용이 가지는 분명한 역할과 형태를 선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A를 시스템으로 적용한 기관이나 기업조직은 그들의 업무분야에서 EA 정보를 활용하여 일반 사무 및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EA를 도입한 국내 상당수 기관에서는 E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EA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계획

및 방안을 갖지 못했다는 것에 기인하고 아키텍처 정보가 산출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활용성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최진명, 2010).

또한 EA정보의 현행화 없이 초기 구축 당시 그대로 유지되면 EA 정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비즈니스 혹은 IT의 변화에 대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상태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갖추어지고 이를 통한 정보가 현행화 되어야 활용을 위한 기반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EA정보관리는 수작업의 문서형태로도 가능하나 다루고자 하는 정보 규모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현대의 EA는 시스템 없이는 현행화 관리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승렬과 신동원(2009)은 EAMS (Enterpris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 구축 사례연구를 통해서 EA 활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EA 정보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정보의 부재, 데이터 정확성 미흡, 적절한 접근도구의 부재, EA 필요성 부재 등을 꼽았고 대부분의 정보 이해당사자는 EA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나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의 부재 또는 정확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EA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EA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과 입력되어 있는 정보의 최신버전 유지 및 정확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IT-비즈니스 연계

Luftman(2000)은 IT와 비즈니스간의 연계수준 측정 방법론 연구에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IT가 비즈니스 전략, 목표 그리고 필요성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IT-비즈니스 연계를 정의하고 2가지 질문으로 던져 상세화 하고 있다. 첫째, 비즈니스에 연계가 잘 된 IT는 어떤 것인가? 둘째, IT와 비즈니스간 연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성숙한 연계 체계하에서 IT와 비즈니스 기능들이 상호 전략들을 함께 적응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이렇듯 IT-비즈니스 연계에서의 핵심은 상호 전략에 대한 정의라 할 수 있고 IT-비즈니스 연계를 통해서 IT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을 가능케 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Reich and Benbasat, 2000), 그러한 연계수준은 IT미션, 목적 그리고 계획이 비즈니스의 미션, 목표 그리고 계획들에 의해 지원되는 정도로도 표현하기도 한다(Reich and Benbasat, 1996).

한편 IT-비즈니스 연계의 중요성이 학계, 산업계 등에서 폭 넓게 인식되

어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IT 프로젝트들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중복된 프로젝트가 수행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는 시스템이 발생하여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불만족하게 되는 등 많은 기업들의 연계 수준은 높지만은 않은 상태로 결국 IT비용이 높아져 조직 전체의 원가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Chen, 2010).

연계가 안되는 중요이유에 대해 Chen(2010)은 IT와 비즈니스간의 업무적 관계, IT 필요성의 효과적인 우선순위,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IT역량, 비즈니스에 대한 IT의 이해부족, 최고경영진의 IT지원 부족, 그리고 IT관리의 리더십 부족을 포함시켰다. Reich and Benbasat(2000)는 연계를 잘하기 위한 5가지 요인으로 IT와 비즈니스 관련 임원들간의 지식 공유, 계획된 IT 과제 실행, IT와 비즈니스 임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와 IT계획 프로세스들 사이의 연계성, 그리고 전략적 비즈니스 계획을 꼽았다.

IT와 비즈니스간 연계 성숙도 방법론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발표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Luftman (2000; 2003)이 연구한 성숙도 측정기준으로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CMM을 참조하고 비즈니스 업무형태의 전략적인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어 6가지 IT-비즈니스 연계의 성숙도 분류체계를 개발했다. 첫 번째는 소통성숙도(Communication Maturity) 로서 효과적인 아이디어 교환, 얻고자 하는 것의 명확한 이해, 지속적인 부서간의 지식공유가 연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두 번째는 역량/가치 측정 성숙도(Competency/Value Measurements Maturity)로서 IT의 가치를 비즈니스 측면에도 이해할 수 있도록 IT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Dashboard'등의 활용이 필요하며, 업무성과 메트릭스 기준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 성숙도(Governance Maturity)이다. 이는 자원, 리스크, 문제 해결방안, IT 책임에 대한 권한, 그리고 과제선택과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비즈니스 현장 담당자, IT관리자, 서비스제공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파트너십 성숙도(Partnership Maturity)로서 비즈니스와 IT 조직 사이에는 상호협력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하며 이러한 협력수준을 일치시킴으로 IT기능에 비즈니스 전략을 정의하고 동일한 역할을 갖도록 기회를 주게 된다. 다섯 번째로 기술범위 성숙도(Technology Scope Maturity)이다. IT는 영업조직(Front Office)이나 관리조직(Back Office)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비즈니스 관련자와 고객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해 주는 정보 인프라 운영역할로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스킬 성숙도(Skills Maturity) 로서 모든 IT인력들에 관한 것으로 어떻게 고용하고 해고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시키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들을 뛰어넘어야 하며 조직은 역동적인 환경에서의 변화에 대비하고, 개인은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개인과 조직은 그들의 경험으로 부터 신속하게 학습하며, 조직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극대화 하는지가 중요한 성숙도 조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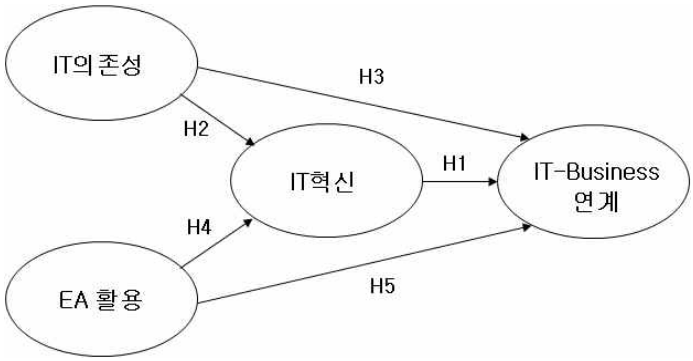
Ⅲ.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IT-비즈니스간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IT혁신, IT의존성, EA활용이 IT-비즈니스간 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앞선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5개의 가설을 제시한다. 이들 가설 도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H1 : IT혁신은 IT-비즈니스 연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궁극적으로 IT를 수용하는 기업들은 혁신에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타 조직의 성공사례(Best Practice) 또한 적극 수용하며 산업계 유행(Industry Fad)을 무작정 쫓아가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Lu and Ramamurthy, 2011). 즉 IT혁신이 정착된 조직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트랜드를 따라가는 소위 "밴드웨곤 현상"을 배제하려 하고 비즈니스의 명확한 목적과 타당성을 기반



<그림 2> 연구모형

으로 IT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IT와 비즈니스의 관계가 좀더 명확히 정의되어서 양자가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IT혁신의 주체는 기존 IT부서에서 현업 사용자 주도로 변모하고 있다(Kettinger and Lee, 2002). 현장 사용자 주도로 IT 혁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IT 수준 향상과 IT에 대한 민첩한 대응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고(Truex et al., 1999) 이로 인해 IT는 비즈니스에 보다 밀첩하게 연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IT활동이 수반되는 IT혁신은 IT-비즈니스 연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H2 : IT의존성은 IT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IT의존성은 IT-비즈니스 연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T 의존도는 경영활동에 IT가 얼마큼 지원하고 영향을 주며 경영성과를 위해 필요한 정도라고 정의할 때(박성순 외, 2004)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IT의존도가 높은 금융업이나 ERP, SCM, MES와 같은 기간시스템에 의해 기업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제조업은 비즈니스의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IT를 활용한 혁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키기 위해 IT전략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수용한다(Philip, 2007). 또한 IT 전략을 통해서 기업은 비즈니스 전략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 IT-비즈니스 연계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Reich and Benbasat, 2000). 이에 따라 IT의존도는 IT혁신과 IT-비즈니스 연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H4 : EA활용은 IT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 EA활용은 IT-비즈니스 연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A는 IT-비즈니스간 전략적 실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Hoogervorst, 2004) 2가지 핵심적인 방법으로 IT-비즈니스간 연계를 가능케 하는데(Philip, 2007) 첫번째는 IT와 비즈니스가 일반적인 프로세스 구조 형태를 갖고 동시에 운영을 위한 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IT와 비즈니스가 동일한 영역(Domain)에서 동시에 설계되고 역할이 명시화 되어 상호 기능이 명확해지게 된다. 두번째는 EA를 통해 IT와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상태가 상세히 정의되고 기술된다. 이러한 EA 활용으로 환경이나 법 규제 같은 컴플라이언스 관리, 기업연속성관리, 리스크 관리 등이 수행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비즈니스의 필요

한 기능은 IT-비즈니스가 연계된 툴인 EA로 제공되어야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행되어지며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Winter and Schelp, 2008). 그러므로 EA 활용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IT를 최적화 시킬 수 있으므로 IT혁신은 물론 IT-비즈니스간 연계에 유의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IV. 연구 방법

1. 개념 정의 및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에 대한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먼저 IT혁신은 업무혁신 활동시 IT활용 수준 이라고 정의한다. Swanson and Ramiller(2004)는 조직에서의 혁신을 이해도(Comprehension), 채택도(Adoption), 실행도(Implementation), 흡수도(Assimilation)로 구분하고 IT혁신의 성공요인으로 열의(Mindfulness)가 중요하다고 연구하였으며, Xia and Lee(2000)는 IT혁신을 하기 위한 중요요소로 설득(Persuasion), 훈련(Training), 직접사용 경험(Direct-Use Experience)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혁신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채택도(Adoption), 흡수도(Assimilation), 직접사용 경험(Direct-Use Experience) 3가지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IT의존도는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영향정도로 정의하였다. 앞선 문헌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성을 업무범위, 필요자원, 중요도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의하였고(Kiggunda,1981), Nordströma(2000)는 IT의존도를 IT의 영향정도(Effectiveness)로, 박성순외(2004)는 IT의존도 결정모델 연구에서 IT의존도를 중요도, 활용도, 필요도 3가지로 정의했다. 이에 IT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도(Necessity), 활용도(Usage), 영향정도(Effectiveness) 3가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셋째 EA활용은 업무수행시 EA정보를 사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승렬과 신동원(2009)은 필요정보 확보, 데이터 정합성 유지, 시스템 활용을 EA 활용을 위한 중요요소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더불어 현장에서 EA를 운영하는 IT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EA정보 현행화, IT투자결정시 활용정도, 전략과의 연계 등의 3가지를 EA활용성을 측정하기위한 측정치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IT-비즈니스 연계 관련한 문헌연구에서, Chen(2010)은 연계의 중요요소로 IT와 비즈니스간의 업무적 관계, IT 필요성에 의한 효율적인 우선순위,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준의 IT역량, 비즈니스에 대한 IT측면의 이해력, 최고경영진의 IT지원, 그리고 IT관리의 리더십을 꼽았다.

또한 Luftman(2000; 2003)은 IT-비즈니스 연계 성숙도 측정을 위해 소통(Communication), 역량/가치(Competency/value), 거버넌스, 파트너십(Partnership), 기술범위(Technology scope), 기술(Skills)을 성숙도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Kearns and Sabherwal(2007)의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진의 IT지식수준, IT 기획(Planning)시 관리자의 참여, IT 프로젝트 계획의 품질과 수행단계의 문제관리를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출하였고, Lu and Ramamurthy(2011)는 IT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상호연계에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 빈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IT와 비즈니스 연계를 대표하는 특성으로 IT의 비즈니스 이해력, 소통(Communication), 거버넌스 3가지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과 기초분석

본 연구의 설문은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업무 경력 5년 이상의 IT컨설턴트, 정보전략, IT 개발자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 구두질의를 통해 EA사용 경험이 없거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는 35명은 제외하였고 나머지 120명은 설문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성실

<표 1> 응답자의 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115	96
	여자	5	4
연령	20대	12	10
	30대	53	44
	40대	55	46
업종	제조	62	52
	금융	41	34
	서비스	17	14
직종	IT컨설팅	73	61
	시스템개발	34	28
	정보전략	13	11
경력	10년 이하	15	13
	10년~15년	82	68
	15년 이상	23	19
합 계		120	100

<표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항목	요인적재량	AVE	CR	크론바흐α
IT혁신	IT채택정도	0.758	0.586	0.849	0.766
	IT흡수정도1	0.780			
	IT흡수정도2	0.783			
	직접사용경험	0.739			
IT의존성	필요정도	0.778	0.690	0.899	0.851
	활용정도	0.840			
	영향정도1	0.873			
	영향정도2	0.830			
EA활용	EA현행화	0.748	0.666	0.888	0.832
	투자시 활용1	0.843			
	투자시 활용2	0.850			
	전략과의 연계	0.817			
IT-Biz 연계	소통 수준1	0.752	0.662	0.907	0.872
	소통 수준2	0.802			
	거버넌스 수준1	0.843			
	거버넌스 수준2	0.869			
	IT의 업무이해정도	0.795			

하게 응답하였기 때문에 120부 모두를 채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각 항목마다 7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설문자 본인이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대상 조직이나 현재 정보전략 혹은 IT운영 업무의 대상 조직에 대해 설문항목을 작성토록 하였다.

유효 표본의 통계학적 특성 <표 1>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115명, 여성 5명으로 남성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연령대는 20대 12명, 30대 53명, 40대 55명로 나타났으며 관련 업종은 제조 62명, 금융 41명, 서비스 17명으로 제조업종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직종은 IT컨설팅 73명, 시스템 개발 34명, 정보전략 13명으로 컨설팅 직종의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간 기존 연구가 거의 없고 연구모형의 다변량 분석이 필요하여 구조방정식의 PLS(Partial Least Square)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먼저 각 문항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 적재량을 평가하였다. <표 2>와 같이 PLS를 통한 데이터 분석 결과, 요인 적재량은 0.748 ~ 0.873 범주에 들어 Nunnally(1978)가 제시한 기준치 0.7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α 값을 조사하였다. 크론바흐α 는 두 개로 나누어진 그룹 간에 발생 가능한 모든 내적일관성의 평균을 의미하며, 통상 0.7이상인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개 변수의 크론바흐α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0.766 ~ 0.872 사이에 존재하여 측정문항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또 하나의 지표인 합성신뢰도(CR) 또한 측정문항 모두가 0.8이상을 나타내어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성개념들의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균추출분산(AVE)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준값인 0.5 보다 높은 값들을 보이고 있어 집중타당성 역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and Larcker, 1981).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 했을 때 얻어진 측정값들이 다른 개념들과 차이를 보이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잠재변수의 상관계수는 적절한 패턴의 적재값을 나타내야 하며 측정변수는 할당된 요인에 높게 적재되어야 한다. 즉 판별타당성 분석은 각각의 개념에 대한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을 한 값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보다 큰 값을 가지면 된다(Chin, 1998).

본 연구에서의 판별타당성은 <표 3>과 같이 대각선 축에 표시되는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큰가의 여부로 검증하였고 검증 결과 AVE의 제곱근 값 중 가장 적은 값이 0.765 로 가장 큰 상관 계수 0.583 보다 상회하여 본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은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4. 가설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및 가설 검증은 500회 반복을 거쳐 부트스트랩 기법을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의 가설 5가지를 검증한 결과, 첫 번째 'IT혁신은 IT-비즈니스 연계

<표 3> 변수간 상관관계

	IT-Biz 연계	IT의존성	IT혁신	EA활용
IT-Biz 연계	0.813*			
IT의존성	0.506	0.831*		
IT혁신	0.656	0.483	0.765*	
EA활용	0.562	0.518	0.583	0.813*

* AVE의 제곱

<표 4> 가설 검증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Value	가설채택
H1	IT혁신 -> IT-비즈니스 연계	0.257	2.457	채택
H2	IT의존성 -> IT혁신	0.257	2.340	채택
H3	IT의존성 -> IT-비즈니스 연계	0.222	2.476	채택
H4	EA활용 -> IT혁신	0.456	4.867	채택
H5	EA활용 -> IT-비즈니스 연계	0.291	2.505	채택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t값이 2.457로 유의 수준 0.01에서 채택되었다. 두 번째 IT의존성 관련하여 'IT의존성은 IT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는 t값이 2.340으로 유의 수준 0.01에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IT의존성은 IT-비즈니스 연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3 또한 t값이 2.476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A활용성 관련한 가설 4인 'EA활용성은 IT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t값이 4.867로 유의수준 0.01에서 채택되었고 'EA활용성은 IT-비즈니스 연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 역시 t값이 2.505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분석되는 등 5가지 가설 모두가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경영진과 CIO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IT와 비즈니스간의 연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IT와 비즈니스간 연계 관련 선행연구는 이미 많이 발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미를 두고 수행하였다.

기업의 속성상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혁신도구로 IT활용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또한 기업규모가 커지고 IT가 복잡해짐에 따라 EA의 활용 역시 점차 중요해 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IT혁신과 IT의존성, 그리고 EA 활용을 주요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IT의존성은 IT-비즈니스간 연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IT의존도가 낮은 업무는 상대적으로 수작업이 많게 되는데 수작업이 안고 있는 폐해는 업무소요시간이 길어지고 업무처리의 부정확, 부서원들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IT의

존성이 높아지면 이러한 단점 극복은 물론 업무 개선을 위한 IT구축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어 IT와 비즈니스 연계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IT의존성은 IT혁신에 영향을 미쳐 IT혁신이 IT-비즈니스간 연계에 매개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는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IT의 영향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IT-비즈니스간 연계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IT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EA 활용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EA 활용도가 높은 조직이 IT-비즈니스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이 또한 부분적으로 IT혁신을 통한 매개효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IT-비즈니스간 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업무혁신 활동시 IT활용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기업이나 조직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원가를 줄이는 등 혁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IT를 활용한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을 IT화하기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기반의 EA도입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적용 초기단계로 실효성에 비해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EA활용성이 IT와 비즈니스 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 EA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적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기업 형태를 한정하지 않고 수행하였으나 기업은 제조, 금융, 서비스 등 업의 특성이 존재하는 바, 향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업의 형태 비교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형진・양경식・전성현(2006), 국내 ITA-EA 도입 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5권, 제3호, pp.63-82
2. 박광오・장활식(2011), SCM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통합적 연구:공급업체 관점으로,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1, No. 1, pp.1-27
3. 박성순・유은정・이환수・김병완・임춘성(2004), 기업정보화 핵심업무활동 선정을 위한 IT의존도 결정 모델에 관한 연구, '04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4. 박일규・서일정・김상훈(2009), EA 운영조직의 역할이 E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EA 활용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09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5. 전성현(2008), 활용 관점에서 본 EA 추진전략,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제5권, 제2호, pp.21- 30
6. 정승렬・신동원(2009), 정보수명주기관리(ILM) 기반의 전사적 아키텍처(EA)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관리 시스템의 활용성과 효율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제6권, 제2호, pp.107-121
7. 정철호・정영수(2010), ERP 도입시 변화관리 특성이 구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제29권, 제1호, pp.177-201
8. 조현달(2009), 성공적인 전략정보시스템 계획(SISP)수립을 위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제28권, 제4호, pp.199-223
9. 최수형, 최진혁(2011), 공급사슬에서의 기업 간 협력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제30권, 제4호, pp.229-247
10. 최진명(2010), 활용을 고려한 요구사항 기반 EA 구축 방안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Vol. 7, No. 3, pp.238-242
11. 한경일(2003), 컴퓨터 사용능력에 따른 과업의 상호의존성과 정보특성간의 적합성이 정보시스템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통정보학회지, 제6권, 제1호, pp.1-25
12. 행정안전부(2011), 범정부 EA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13. Amabile, T. M.(1988), A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in B.M. Shaw and L.L. Cumming(Eds.), Research in Organization Behavior, JIA Press

14. Bernard, S.(2005), An Introduction to Enterprise Architecture, AuthorHouse
15. Caetano, A., Silva, A. R., Tribolet, J.(2009), A Role-Based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SAC '09, pp.253-258.
16. Chen, L.(2010), Business-IT Alignment Maturity of Companies in China, Information & Management, Vol. 47. No. 1, pp.9-16
17. Chin, W. W.(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pp.295-336
18. Ching, R. K. H. and Niehoff, N.(2003), A Proposed Model of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Sustained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s, Proceedings of the 9st America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19. Ernst, A. M.(2008), Enterprise Architecture Management Patterns, '08 Proceedings of the 15th Conference on Pattern Languages of Programs, No. 7
20. Fornell, C. and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al Equations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382-388
21. Gartner(2010), IT Metrics:IT Spending and Staffing Report
22. Hartono, E.(2003), Issues in Linking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 to Firm Performance, MIS Quarterly, Vol. 27, No. 1. pp.125-153
23. Henderson, J. C.(1993), Strategic Alignment: Leverag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Transforming Organizations, IBM Systems Journal, Vol. 32. No. 1. pp.4-16
24. Hoogervorst, J.(2004), Enterprise Architecture : Enabling Integration, Agility and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operative Information Sys- tems Vol. 13, No. 3, pp.213-233
25. Kang, D.M.(2007),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 Innovation by the Organizational Justice under the Annual Salary System, Ph.D. Dissertation, Paichai University
26. Kearns, G. S. and Sabherwal, R.(2007), Strategic alignment

between Busines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 Knowledge-Based View of Behaviors, Outcome, and Consequence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23, No. 3, pp.129-162

27. Kettinger, W. and Lee, C.(2002), Understanding the IS-User Divide in IT Innovation,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45, No. 2, pp.79-84.
28. Kiggundu, M. N.(1981), Task Interdependence and the theory of Job Desig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6, No. 3, pp.499-508
29. Kwon, O., Seo, H. and Oh, J.(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BSC System Acceptance Factors on the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 3, pp.152-173
30. Lu, Y. and Ramamurthy, K.(2011),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Agility: An Empirical examination, MIS Quarterly, Vol. 35, No. 4, pp.931-954
31. Luftman, J.(2000), Assessing Business/IT Alignment maturity,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Vol. 4, No. 14
32. Luftman, J.(2003), Assessing IT/Business Alignment,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Vol. 20, No. 4, pp.9-13
33. Newkirk, H. E. and Lederer, A.(2006), Incremental and Comprehensive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Planning in an Uncertain Environment.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 53, No. 3, pp.380-394
34. Nordströma, T.(2000), Business Development in IT dependent Organisations, Proceedings of IRIS 23. Laboratorium for Interaction Technology
35.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36. Philip, G.(2007), IS Strategic Planning for Operational Efficiency,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Vol. 24, No. 3, pp.247-264
37. Reich, B. H. and Benbasat, I.(2000), Factors that Influence the Social Dimension of Alignment between Business and

Information Technology Objectives, MIS Quarterly, Vol. 24, No. 1, pp.81-113

38. Reich, B. H. and Benbasat, I.(1996), Measuring the Linkage between Business and Information Technology Objectives, MIS Quarterly, Vol. 20, No. 1, pp.55-81
39. Rubenstein, A.H., E, Geisler, and Grabowski, B.(1988), Managing Technology in the Firms in the Service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Vol. 3, No. 6
40. Stratopoulos, T. C. and Lim, J.(2010), IT Innovation Persistence: An Oxymoron?,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53, No. 5, pp.142-146
41. Swanson, E. B. and Ramiller. N.C.(2004), Innovating Mindfully with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28. No. 4, pp.553-583
42. Tornatzky, L. G. and Klein, K. J.(1982), Innovation Characteristics and Innovation Adoption - Implementation: Ameta Analysis of Findings, IEEE Trans.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 29, No. 1, pp.28-45
43. Truex, D., Baskerville, R., and Klein, H.(1999), Growing Systems in Emergent Organization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42, No. 8, pp.117-123
44. Venkatesh, V., and Davis, F. D.(2000),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 46, No. 2, pp.186-204
45. Winter, R and Schelp, J.(2008), Enterprise Architecture Governance: The Need for a Business to IT Approach, SAC'08
46. Xia, W. and Lee, G.(2000), The Influence of Persuasion, Training, and Experience on User Perceptions and Acceptance of IT Innovation, ICIS '00 Proceedings of the Twenty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pp.371-384.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for IT Innovation, IT Dependency and Enterprise Architecture Usage on IT-Business Alignment

Jeon, Woong-Chan* · Jeong, Seung-Ryul** · Min, Dae-H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effects for IT Innovation, IT Dependency and Usage of Enterprise Architecture on IT-Business Alignment that have been on the mind C-level executives for several decades. In order to substantiate 5 hypothesis related 4 variables, 120 IT experts had been surveyed and Partial Least Square Method had been used to analyze the result.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echnical review and feasibility study for IT Project should be performed considerably to align IT and Business requirement efficiently. It also implies that increased IT Dependency in working process results in the clearer spec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IT Project.

Key Words: IT Innovation, IT Dependency, Enterprise Architecture, IT-Business Alignment

* Ph. D. Stud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T, Kookmin University, 1007023@naver.com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T, Kookmin University, srjeong@kookmin.ac.kr
*** 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 Risk Management, 1205tianhwa@naver.com